

방광요관역류 환아의 가족 선별 검사에 관한 연구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

강 희, 유기환, 홍영숙, 이주원, 김순검

목적 : 많은 방광요관역류 환아에서 유전적인 경향이 보고되고있으며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20-50%정도로 알려져 있다. 따라서 무증상 가족의 방광요관역류의 발견은 신손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. 이에 우리나라 소아에서 방광요관역류의 가족력을 조사하고 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 : 고려대학교 소아과에 내원한 방광요관역류 환아 중 가족의 조사에 동의한 27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형제자매는 BUN, Cr, 소변검사, 소변배양검사, 배뇨성 요도방광조영술과 DMSA Scan을 시행하였고 부모는 배뇨성 요도방광조영술을 제외한 위의 검사를 시행하였다.

결과 : 1) 27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79명이었다. 이 중 환아는 27명 (3.03세±3세, 1개월-9세), 형제자매 20명 (3.9세±2.8세, 1-11세), 부모 32명 (32.3세±4.8세, 21세-42세) 이었다.

2) 27가족 중 이상이 발견된 가족은 7가족(25.9%), 총 8명이었으며 모두 무증상이었다. 이 중 방광요관역류가 발견된 경우는 5명이었으며 부모 중 3명은 DMSA Scan상 이상이 발견되었다.

3) 환아 중 가족의 이상이 발견된 7명을 A군 나머지를 B군으로 할 때

a. 양군의 GFR은 차이가 없었다.

b. A군에서 DMSA상 더 심한 반흔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( $P<0.05$ ) 역류의 정도와는 비례하지 않았다.

c. 양군에서 일측성과 양측성의 차이는 없었다.

4) 형제자매에서 방광요관역류가 발견된 경우 환아의 DMSA Scan상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높았다( $P<0.05$ ).

결론 : 방광요관역류의 가족력은 25.9%에서 발견되었으며 역류와 더불어 신장의 반흔이 발견된 경우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방광요관역류 환자 특히 신반흔이 있는 경우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야뇨증에서 imipramine과 desmopressin(minirin<sup>(R)</sup>) 단독요법과 복합요법의 치료성적  
박정수 · 서영준 · 이상돈 부산의대

목적 : 야뇨증 환자에서 imipramine과 desmopressin (minirin<sup>(R)</sup>)의 단독요법과 복합요법의 효과를 비교하여 복합요법의 유용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야뇨증 진단을 받고 선별검사를 통하여 기질적 원인을 배제할 수 있었던 단일증상성 야뇨증 환자 131례를 imipramine군 44례 (I군), desmopressin 군 40례 (II군), 두 약제의 복합요법군 47례 (III군)로 분류하여 각 군의 치료효과를 알아 보았다. 치료방법은 수분제한, 지지요법, 배뇨일지 작성과 더불어 약물치료로 I군 imipramine 25mg, II군 minirin 0.2mg, III군 imipramine 12.5mg 및 desmopressin 0.2mg을 취침 1시간 전 경구투여하였다. 치료반응을 첫 2주에 일차 평가하였고 이후 4주단위로 관찰하여 야뇨의 빈도가 주당 0-1회로 줄어든 경우를 우수 반응군, 치료 전보다 50% 이하로 줄어든 경우를 반응군, 50% 이상인 경우를 비반응군으로 분류하였다.

결과 : 전체 대상군 131례의 연령분포는 5-22 세 (평균 9.2세)였다. I군, II군, III군의 연령분포는 각각 5-17세 (평균 9.3세), 5-22세 (평균 9.9세), 5-22 세 (평균 8.3세)로 세 군의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I,II,III군의 치료 전 평균 야뇨빈도는 각각 주당 6.1회, 6.4회, 5.9회로 차이가 없었고, 평균 치료기간은 I군 17.2주 (4-34), II군 18.3주 (4-35), III군 17.6주 (3-36) 였다. 야뇨횟수가 절반이하로 감소하기까지의 치료반응기간은 I군 6.7주 (1-40), II군 7.8주 (2-22), III군 3.0주 (1-16) 로 III군에서 치료반응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. ( $p<0.05$ ). 각 군에서 반응 이상의 치료성적은 I군 90.9%, II군 95.0%, III군 95.8%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원발성야뇨증의 치료성적은 I, II, III군에서 각각 87.9%, 95.2%, 94.8%로 II, III군이 I군에 비해 성적이 좋았으며 속발성야뇨증은 각각 100%, 88.9%, 100%로 I, III군이 II군에 비해 반응이 좋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재발률은 I,II,III군에서 각각 40.0%, 41.2%, 42.8%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약물을 중단할 만한 부작용은 세군 모두에서 없었다.

결론 : 야뇨증 환자에서 imipramine과 desmopressin (minirin<sup>(R)</sup>) 복합요법은 imipramine 이나 desmopressin 의 단독요법에 비하여 치료반응 기간의 단축 이외에는 치료효과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